

【한자와 나오키 제06화】

<https://cafe.daum.net/jpcokr/KpLx/6346>



(다시 나온 표현이니 복습해 주세요^^)

01:01 かつて 5億の融資失敗の 汚名を着せられ

>> 과거 5억엔 대출 실패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きせる [着せる·著せる·被せる]

1. (옷 따위를) 입히다. 2. (책임 등을) 남에게 전가하다; 뒤어씌우다. 3. [고어] 치다; 때리다.

비교: 이시코와 하네오 – 그런 일로 고소합니까? – 제07화

14:19 無実の人が罪を着せられた時に 冤罪にならないよう
に そうなってるんです

>>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뒤집어 썼을 때 억울한 누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01:55 お前に**ご執心**の大和田常務が ぜひ会食したいと言ってきてる

>> 너한테 꽃힌 오오와다 상무가 꼭 같이 식사하고 싶다고 하더라

しゅうしん [執心] 집심, 집착심, 미련.

메모: 특정 대상(사람, 사물)에 마음을 뺏겨 집착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執心으로만 쓰면 '집착'의 의미로, 'ご執心'이라 쓰면 윗사람에 대한 표현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 됩니다.





(다시 나온 표현이니 복습해 주세요^^)

02:15 半沢の心の底には 黒い憎悪の火種がくすぶっていた

>> 한자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검은 증오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다

ひだね [火種] 불씨.

<스부르 [燻る]

1. (불이 잘 타지 않고) 연기만 내다. 2. 그을다. 3. 감정이 남아 있다, 맺히다, 풀리지 않다.
4. (제자리에서) 맴돌다; 제자리걸음하다. 5. 틀어박히다; 죽치다.

비교: 악녀 ~일하는 것이 멋지지 않다고 누가 말했어?~ 제02화

47:16 いつまで くすぶってるつもり?

>> 언제까지 쳐박혀 있을 생각이야? / 언제까지 꿈하고 있을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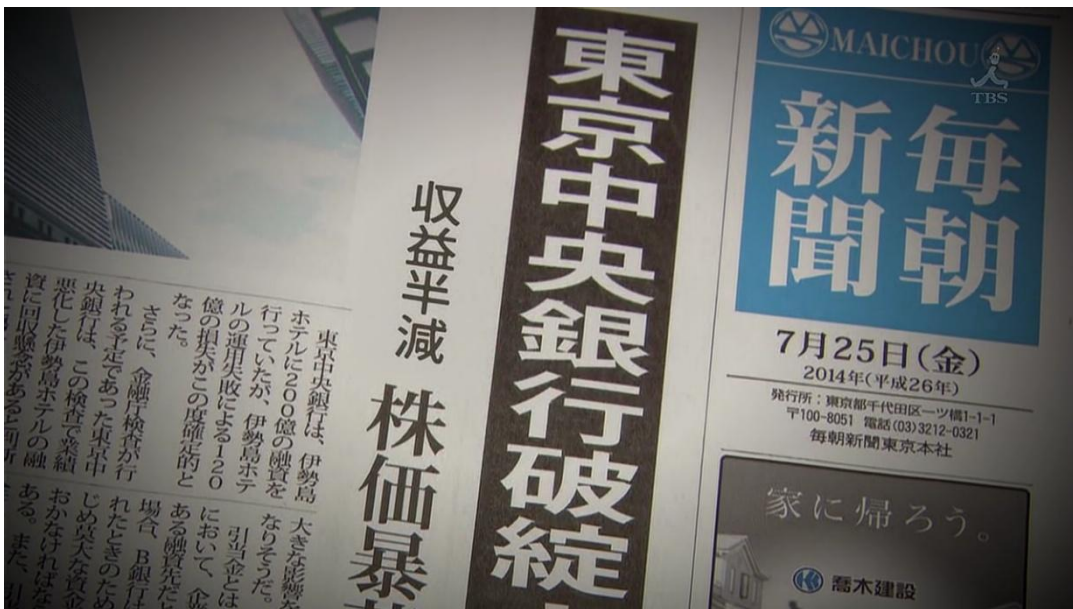




(다시 나온 표현이니 복습해 주세요^^)

03:15 そうなれば 銀行の信用は**失墜**し 経営基盤そのものが 揺るぎ**かねない**のだった

>> 그렇게 되면 은행의 신뢰는 추락하고 경영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다



(다시 나온 표현이니 복습해 주세요^^)

12:37 経営の根幹を揺るが**す**事態になり**かねない**のだった

>> 경영의 근간을 뒤흔들 사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しっつい [失墜] 1. 실추 2. 낭비

～かねる：他の動詞の連用形に付いて用いる。

㉞…しようとして、できない。…することがむずかしい。「納得しー・ねる」「何とも言いー・ねる」

㉟（「…かねない」などの形で）…するかもしれない。…しそうだ。「悪口も言い出しー・ねない」

참고: 한자와 나오키 제02화

09:38 あの騒ぎは 何だということになって 今度は支店長が 責任を問われかねないからな

>> 그 소동은 뭐였냐는 상황이 되면 이번에는 지점장이 책임을 추궁당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지





03:23 問題は **引当金** ですね

>> 문제는 **충당금**이네요

ひきあてきん [引当金] 충당금

引当金（ひきあてきん）とは、将来発生する可能性が高い特定の費用や損失に備えて、あらかじめ当期の費用として決算書に計上しておく見積もり金額。お金の実際の支払いは「未来」ですが、その原因が「当期」にある場合、発生主義のルールに従って今から準備（引当て）をしておく必要がある。



03:52 今こそ 我々が一枚岩となって この困難を 乗り切ろうじゃありませんか？

>>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로 뭉쳐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いちまいいわ [一枚岩] 1. 통반석, 너럭바위. 2. 조직·단결의 굳건함.

메모: 조직이나 그룹 멤버 전원이, 의견의 대립이나 내부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강하게 뭉치는 상태를 뜻합니다.





05:00今夜はちょっと ヤボ用がある

>> 오늘 밤은 좀 볼일이 있어

야ぼう [야보用·野暮用·夜暮用] (취미나 놀이가 아닌) 사무적이거나 일상적인 일.

「ちょっとした用事」や「人には言えない日常的な雑用」を意味する言葉

- 用件をぼかしたい時：具体的な内容（買い物、役所の手続き、私用など）を相手に伝える必要がない時に便利。
- 誘いを断る時：角を立てずに「先約や私用がある」と伝えられる。
- 目上の人にはNG：少しでもだけた表現のため、ビジネスでの上司や取引先には「私用」や「急用」を使う。



やぼ [野暮] 멋이[풍류가] 없음; 촌스러움; 세상 물정에 어두움; 또, 그런 사람; 썩; 촌뜨기.

참고: 악녀 ~일하는 것이 멋지지 않다고 누가 말했어?~ 제07화

27:08 すいません 田中 やぼなことを…。

>> 죄송해요 제가 눈치 없는 소리를….



やぼったい [野暮ったい] [속어] 촌스럽다; 세련되지 않다.

참고: 합리적으로 말도 안 돼 ~탐정 카미즈루 료코의 해명~ 제09화

42:06 昔は もっと やぼったかったのに。

>> 옛날에는 좀 더 촌스러웠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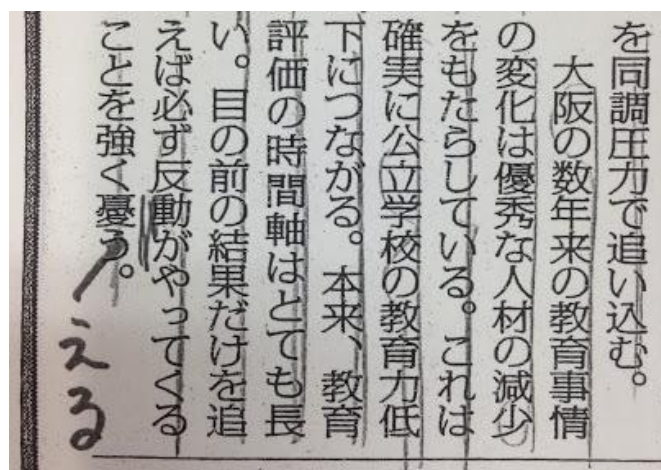
05:35 私は正直 憂いている

>> 나는 솔직히 걱정이야

うれう [憂う·愁う·患う] '憂える'의 문어(文語)형-

うれ-える [憂える·患える] 걱정하다; 근심하다; 마음을 태우다; 한탄하며 호소하다.

うれい [憂い·愁い·患い] 1. 근심 2. 슬픔 3. 기증





06:02 頭取の椅子に中野渡さんが座っている限り 我々が 日の目を見ることはないだろう

>> 은행장 자리에 나카노 와타리 씨가 앉아 있는 한 우리가 빛을 볼 일은 없는 거지

ひのめをみる [日の目を見る]

1. 햇빛을 보다. 2. 세상에 알려지다. 3. 세상에 나오다.





(다시 나온 표현이니 복습해 주세요^^)

06:27 やはり酒は この鳶姫にかぎるね

>> 역시 술은 이 토비히메가 최고지

かぎる [限る]

2. ('...は...に限る'의 꼴로) ...하는 것이 제일이다; ...밖에 없다.

참고: 핫 스팟 제06화

07:25 迷った時は これに限る

>> 망설일 땐 이게 최고다





(다시 나온 표현이니 복습해 주세요^^)

10:05 そうなれば 我が行は破綻をきたし 頭取のクビがとぶ

>> 그렇게 되면 우리 은행은 파탄나고 은행장 목이 날아가

きた-す [来す] 오게 하다; 초래하다; 일으키다.

참고 : 이시코와 하네오 - 그런 일로 고소합니까? - 제07화

01:24 もちろん これまでどおり 仕事に支障をきたすまねは 絶対に...

>> 물론 지금까지처럼 일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절대로...





10:15 それまでに 120億の補填と ホテルの再建案を検討してくれ

>> 그때까지 120억엔 보전과 호텔 재건 계획을 검토해 주게

ほてん [補填]

보전, 부족한 부분을 보태어 채우는 것. (=填補)

骨補填材の安全性と種類：3つの安心素材

自分の骨 (自家骨)	人工の材料 (人工骨)	動物由来の材料 (他種骨)
		
最も安全・ 拒絶反応なし	骨と同じ成分で作成・ 感染リスクなし	徹底した滅菌・ タンパク質除去で安全
✓ 安心	✓ 安全	✓ 承認済み



13:04 半沢直樹の両肩には 東京中央銀行の未来が 重くのしかかっていた

>> 한자와 나오키의 양쪽 어깨에는 도쿄중앙은행의 미래가 무겁게 짓눌려 있었다

のしかかる [押し掛かる]

1. 덮치다
2. 상대방을 억압하려는 듯한 태도로 나오다
3. 덮쳐 누르듯 하다





(다시 나온 표현이니 복습해 주세요^^)

15:31 そういう隙を突いて 資金運用で **ひと旗揚げ**しようとしたのが 羽根専務だ

>> 그런 허점을 파고들어 자금 운용으로 한 번 크게 성과를 내려 했던 게 하네 전무야

ひとはた【一旗】揚(あ)げる

新しく事業などを起こす。意欲をもって新しい運命をきりひらく。

참고: 한자와 나오키 제04화

01:12 俺は必ず **もう一旗**揚げるつもりだ

>> 나는 반드시 다시 한 번 재기할
생각이야





15:38 利益を上げれば 湯浅一族を**押し**のけて 自分が社長になれるとでも たくらんだんだな

>> 수익만 올리면 유야사 일가를 밀어내고 자기가 사장이 될 수 있다고 꾸민 거지

おしのける [押し의ける·押し退의ける]

밀어젖히다, 밀어내다.





16:37 通り一遍倒のことしか 教えてもらえなくてね

>> 표면적인 것밖에 가르쳐주질 않아서 말이야

とおりいっぺん [通り一ぺん·通り一遍] 1. 지나는 길에 들름. 2. 표면상, 형식뿐인 모양. (=皮相)

彼は通り一遍の謝罪しかしなかった。

いっぺんとう [一辺倒] 일변도, 한쪽으로만 기움.

彼は仕事一辺倒の生活を送っている。

메모: 대사에서 나온 通り一遍倒는 、 通り一遍과 一辺倒의 두 단어를 실수로 합쳐버린 틀린 표현입니다.





17:08 支店長の貝瀬さんは 見栄とプライドの塊みたいな御仁だからな

>> 카이세 지점장은 허세와 자존심 덩어리 같은 사람이니까

ごじん [ご仁·御仁]

노인어 사람, 분. (=お方)

메모 1: 한국어로는 경우에 따라 '양반' 정도로 번역하면 좋습니다.

메모 2: "사람"을 뜻하는 한자인 人 대신 仁을 쓰는 이유는 중국 고전에서 仁이 '어진 사람', '덕 있는 인물'을 연상시키는 글자였기 때문이기에, 일본에서는 이러한 한자의 문화적 뉘앙스를 받아들여 사람을 완곡하고 품위 있게 지칭하는 표기로 御仁이 정착되었다 합니다.





21:00 まあ どうにかこうにか

>> 뭐 어떻게든 버티고 있지

どうにかこうに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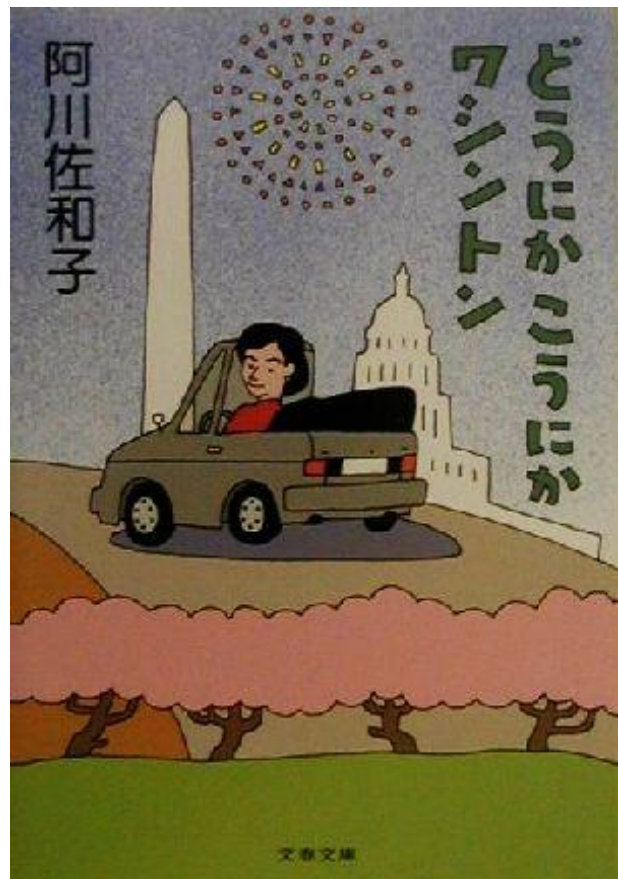
'どうにか'를 강조한 말.

どうにか

1. 겨우겨우, 가까스로, 그런대로, 그럭저럭.

(=かろうじて, やつとのこと)

2. 어떻게(든). (=なんとか)





21:44 今月末までに 融資をしていただかないと うちの立ち行かなくなってしまうす

>> 이번 달 말까지 대출을 받지 못하면 저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たちゆく [立(ち)行く]

1. 그럭저럭 되어(나)가다.
2. (장사가) 재산이 맞다.
3.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다, 생활을 할 수 있다.





(다시 나온 표현이니 복습해 주세요^^)

23:55 とにかく つてを使って探しまくれ

>> 아무튼 인맥을 동원해서 닥치는 대로 찾아봐

つて [伝·伝手] 1. 연고; 연줄 2. 인편; 편 3. ...하는 편; 계제

참고: VIVANT 제09화

55:27 いや、あらゆるツテを使ったが何も

>> 아니, 이런 저런 연줄
을 써 봤지만 아무것도





25:10 週1 二郎は欠かせないからね / 大ダブル野菜カラカラめか

>> 일주일에 한 번 지로는 꼭 먹어야 하거든 / 곱빼기에 고기 두 배 야채 추가 소스 진하게인가

메모: ラーメン二郎는 일본에서 유명한 라면가게의 이름입니다. 주문 방식이 독특해서 초보자들은 주문하는 것도 어려운 가게입니다.

大ダブル野菜カラカラ

大(だい) : 대(大) 사이즈 라멘

ダブル: チャーシューダブル (차슈 더블)를 의미합니다.

野菜: 야채(숙주·양배추) 추가

カラカラ: カラメ+カラメ, 양념(간장 타레)을 매우 많이 추가





29:01 銀行としての筋を曲げるべきではありません

>> 은행으로서의 원칙을 굽혀서는 안 됩니다

すじ [筋] 1. 줄기 2. 가닥

すじがたつ [筋が立つ] 이치에 맞다.

すじがちがう [筋が違う] 이치[도리]에 어긋나다; 엉뚱하다.

すじをとおす [筋を通す] 이치에 닿게 하다; 절차에 따라 행하다.

すじをまげる [筋を曲げる] 신념을 굽히다



(다시 나온 표현이니 복습해 주세요^^)

29:19 伊勢島にしてみれば 我々が金融庁検査で引当金を**あてがわれ** 今後の融資がストップすることの方が痛いはずですよ

>> 이세시마 입장에서는 우리가 금융청 검사에서 충당금을 쌓게 되고 이후 대출이 중단되는 쪽이 더 치명적일텐데요

あてが-う [宛てがう・宛行う] 1. 적당히 생각해서 주다 2. 꼭 대다

참고: VIVANT 제08화

33:42 しかし 子供達に**あてがう** 8000万ドルも 今は**ひっ**迫してきましてね

>> 하지만 아이들에게 할당하는 8000만 달러도 지금은 **여유가 없어져서**요





32:40 何なんです やぶから棒に 内部告発だなんて

>> 무슨 소리에요 뜬금없이 내부고발이라니

やぶ [藪] 1. 덩굴; 대숲 2. '야부医者' '야부にらみ' '야부そば'의 준말

やぶからぼう [藪から棒]

1.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
2. '덤불 속에서 갑자기 몽둥이를 꺼내다'라는 뜻이 변해서 쓰이게 된 말로, 별안간 엉뚱한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쓰는 표현이다.





비교: 이치케이의 까마귀 스페셜

01:05:13 さらに事件関係者は みんな **だんまり**。結局 真相は **やぶの中**。

>> 게다가 사건 관계자는 모두 입을 다물고 있죠. 결국 진상은 미궁으로 빠졌어요.





32:59 ホテルを解雇された男の 逆恨みの戯言でしょう

>> 호텔에서 해고된 남자의 앙심 섞인 헛소리겠죠

たわごと・ざれごと [戯言・囂言]

1. 농담; 시시한[허튼, 실없는] 소리; 또, 잠꼬대. (=ばかばなし)
2. 농지거리, 희담(戯談). (=冗談)

메모: 「戯言 (たわごと)」라고 읽으면 '헛소리', 「戯言 (ぎげん/ざれごと/げげん)」라고 읽으면 '농담'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는 たわごと, 혹은 ざれごと라고 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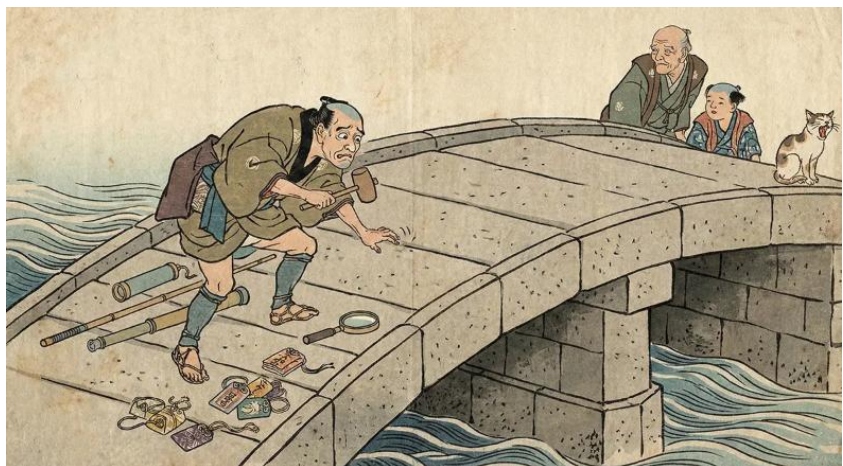


33:59 バレたら懲戒解雇になるような そんな危ない橋を渡れる タマじゃない

>> 들키면 징계해고당할 위험한 짓을 할 인간이 아니야

あぶないはしをわたる [危ない橋を渡る] 위험한 다리를 건너다((위법·모험을 하다)).

いしばしをたたいてわたる [石橋を叩いて渡る]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말);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하라.



たま [玉] 11. [속어] 사람을 낮추어서 하는 말.



(다시 나온 표현이니 복습해 주세요^^)

35:07 何を縮こまってるんですか!

>> 왜 그렇게 쫄아 있는 겁니까!

ちぢこまる [縮こまる] 움츠러들다; 앙당그러지다; 오그라지다; (몸이) 오그라들다.

참고: 한자와 나오키 제04화

08:55 どいつもこいつも 縮こまってるんじゃないわよ!

>> 하나같이 다들 쫄아
있지 말라구!





(다시 나온 표현이니 복습해 주세요^^)

35:36 再建のために 我々の経営企画会議まで顔を出し 奔走してくれた

>> 재건을 위해 우리 경영기획회의에까지 참석하며 분주하게 뛰어다녀 주셨지요

ほんそう [奔走] 1. (일이 잘되도록) 분주하게 뛰어다님; 또, 여러 가지로 애씀.

2. 대접하는 것 3. 소중히 하는 것

참고: 일본 제일의 최저남 ※나의 가족은 가짜였다 제08화

00:41 私 大森 一平は シングルファーザーの弟と その子供たちと一緒に暮らし 家事と育児に 奔走してまいりました。

>> 저 오오모리 입페이는 싱글파더인 매제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살며 집안일과 육아에 매진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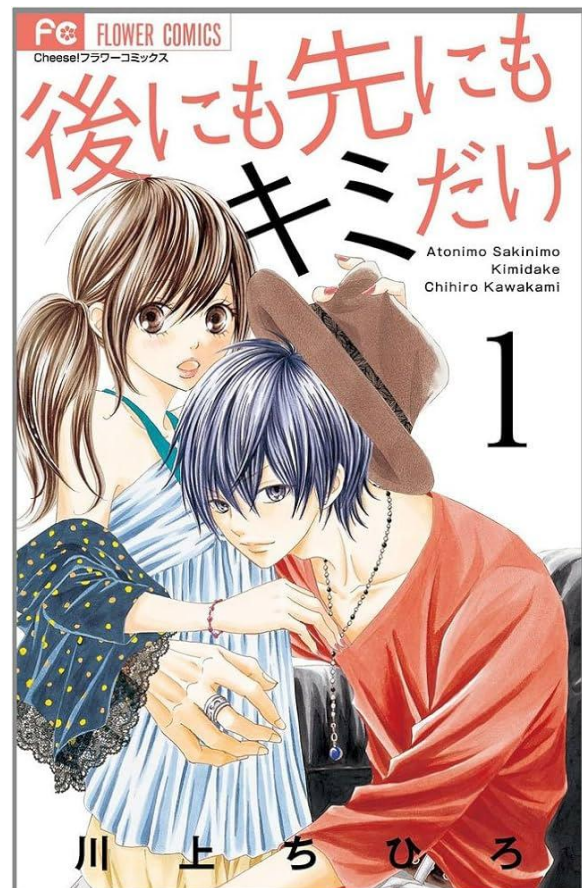


35:45 後にも先にも そんな人は初めてでした

>> 전에도 후에도 그런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あとにもさきにも [後にも先にも]

이전에도 이후에도.





36:10 瀕死の重傷を負った 巨象です

>> 빈사 상태의 중상을 입은 거대한 코끼리입니다

ひんし [瀕死]

빈사.

きょぞう [巨象]

거상, 큰 코끼리.





(다시 나온 표현이니 복습해 주세요^^)

36:54 **それはつまり 御社を縛り続けた悪しき伝統からの脱却**

>> 그것은 곧 귀사를 묶아매 온 나쁜 전통으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하죠

「悪しき (あしき)」は、形容詞「悪し (あし)」の連体形で、「よくない」「悪い」「好ましくない」状態や性質を指す言葉です。道徳的に悪いことや、不適切で感心できない様子を表現し、現代では「悪しき慣習」「悪しき心」のように、改善すべき対象や否定的な評価に対して使われます。

참고: 한자와 나오키 제01화

10:55 **そう考えるのは悪しき銀行の勝手な論理というものでしょう**

>>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악덕 은행의 제멋대로인 논리일 뿐이겠지요





(다시 나온 표현이니 복습해 주세요^^)

37:09 その覚悟がおりなら 御社は**立て直す**ことができますでしょう

>> 그런 각오가 있으시다면 귀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たてなおす [立(て)直す] 1. (쓰러지거나 기울어진 것을) 고쳐 세우다; 다시 일으키다.

2. 만회하다; 본디의 (좋은) 상태로 돌리다. 3. (계획·방침 등을) 다시 세우다.

참고: 일본 제일의 최저남 ※나의 가족은 가짜였다 제05화

21:31 保育園を**立て直す**どころか たった3日で追い出されるなんて。

>> 보육원의 상황을 돌리기는 커녕
겨우 3일 만에 쫓겨나다니





(다시 나온 표현이니 복습해 주세요^^)

43:08 金融庁検査で 伊勢島がやり玉に挙がってるらしいな

>> 금융청 검사에서 이세시마가 집중 표적이 된 모양이던데

やりだま [やり玉・槍玉] 1. 창을 공 다루듯이 잘 다룸 2. 사람을 창끝으로 찌름 3. 대상

やり玉に上げる 비난의 대상으로 삼다

참고: 미스터리라 하지 말지어다 제01화

22:01 冤罪事件で やり玉に挙がって たたかれてましたよね。

>> 누명을 쓴 사건으로 도마에 올라서 비난
을 받았었지요.





(다시 나온 표현이니 복습해 주세요^^)

43:22 **なのに何で目をつむっ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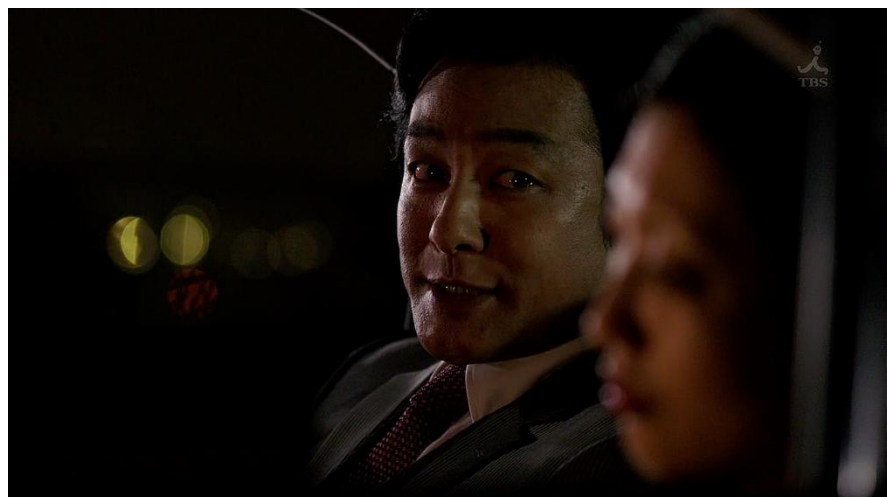
>> 그런데도 왜 눈감아 준 거지

つむる [瞑る] [방원] [눈인어] 눈을 감다.

참고: 한자와 나오키 제04화

36:47 **一切 目をつむってあげるわ**

>> 전부 눈감아 줄게





(다시 나온 표현이니 복습해 주세요^^)

45:18 あるにはあるが 疎開資料の中です

>> 있긴 있지만 피난 자료 속에 있습니다

そかい [疎開・疏開] 1. 소개

2. 화재나 공습 등에 대비해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주민이나 건물을 지방으로 분산함
3. 적의 습격에 대비해 전투 대형의 거리·간격을 넓힘

참고: 한자와 나오키 제03화

09:31 違うよ 疎開 / 疎開? / 裁量臨店があるから しばらく うちに疎開させる

>> 아니야 피신이야 / 피신? / 재량임점이 있으니까 당분간 집에 피신시키는 거야





52:33 タミヤ電機への融資の稟議 **書き渋っている**そうだな

>> 타미야 전기에 대한 대출 품의서 작성을 주저하고 있다면서

しぶる [渋る]

자) 1. 난삽(難澁)하다,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다. (=とどこおる) 2. (배가) 무지근해지다.

타) 1. 주저주저하다; 꺼리다; 망설이다; 떠름한 기색을 보인다.

2. (동사의 연용형(連用形)에 붙어) ...하기를 주저하다.





53:52 もともと 古里をギャフンと言わせたかったのは 俺も一緒だ

>> 원래부터 코자토 죽는 소리하게 해주고 싶었던 건 나도 마찬가지야

ぎゃふん

육박질러 짝소리 못하거나, 압도당하는 모양.

ぎゃふんと言わせる

짝소리 못하게 하다.





54:27 **だが 線は細いが イノシミみたいなあんたが担当になったことが 唯一の望みだ**

>> 하지만 뼈쩍 말라 보여도 멧돼지 같은 당신이 담당이 된 게 유일한 희망이야

せんがほそい [線が細い] 선이 가늘다 (섬세하다, 도량이 좁다).

ちよとつもうしん [猪突猛进]

周囲の人のことや状況を考えずに、一つのことに向かって猛烈な勢いで突き進むこと。「猪突猛进して敵の策にはまる」

참고: 이치케이의 까마귀 제07화

15:47 **そのはざままで 猪突猛进**

>> 그 사이에서 저돌적으로 달려
나가고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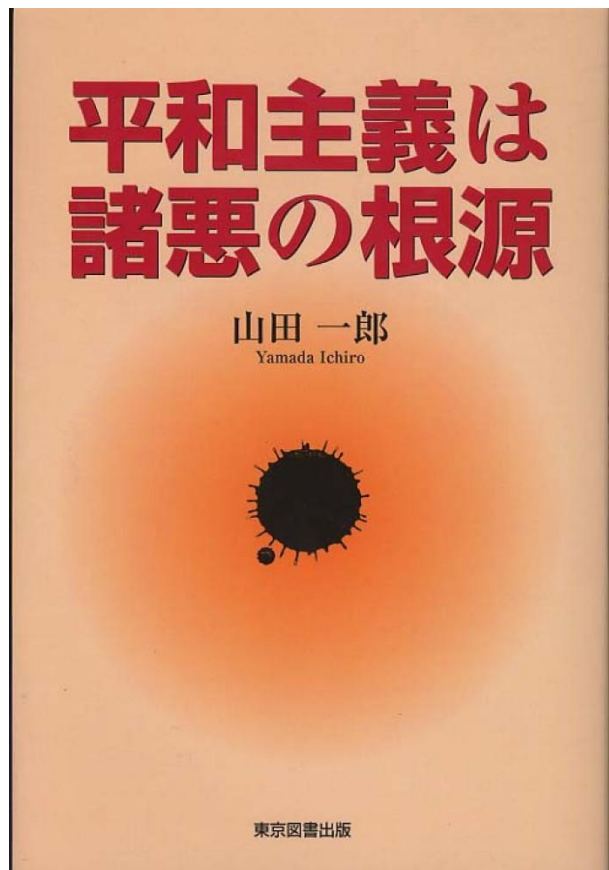


01:01:47 いずれにしても 今回の伊勢島問題 諸悪の根源は京橋支店にある

>> 어쨌든 이번 이세시마 문제의 모든 나쁜 일의 근원은 교바시 지점에 있다

しよあく [諸悪]

제악, 온갖 나쁜 짓.





(다시 나온 표현이니 복습해 주세요^^)

01:03:08 もし潰れでもしたら 何百万人 何千万人が 路頭に迷うか分かってますか？

>> 만약 무너지기라도 하면 수백만 수천만 명이 거리로 나왔게 될지 알고 있나요?

ろとう [路頭] 노두, 노방(路傍), 한길, 길거리. (=みちばた, 路傍)

ろとうにまよう [路頭に迷う] 길거리를 헤매다 ((직업도 사는 집도 없이 몹시 곤란을 겪다))

참고: 악녀 ~일하는 것이 멋지지 않다고 누가 말했어?~ 제03화

14:33 あなたも 何も考えないで 生きてると 将来 路頭に迷うよ。

>> 너도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나중에 길거리에 나왔을 거야





(다시 나온 표현이니 복습해 주세요^^)

01:05:16 ですが今回の件で 伊勢島ホテルが大きなダメージを **被った**ことは事実です

>> 하지만 이번 일로 이세시마 호텔이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こうむ-る [被る·蒙る] 1. 받다 天罰を被る 2. 입다 損害を被る

참고: 이시코와 하네오 - 그런 일로 고소합니까? - 제05화

05:42 その状況の改善と 精神的苦痛を**被った**ことへの慰謝料 50万円を要求している

>> 그 상황의 개선과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것에 대한 위자료 50만엔을 요구하고 있다.





01:05:30 たとえ**地べた**をはいつくばり 土下座をしてでも 伊勢島を再建してみせる

>> 설령 바닥을 기어서라도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이세시마를 재건해 보이겠습니다

じべた [地べた] 구어 땅바닥, 지면. (=じびた, 地面)

はいつくばる [這い蹲る] 또는 はいつくば-う [這い蹲う] 설설 기다; 납죽 엎드리다.





(다시 나온 표현이니 복습해 주세요^^)

01:06:00 確かに 今まで散々 私の足に**すぎる**輩を見てきたが 私はどうも ピンと来なくてねえ

>> 분명 지금까지 실컷 내 다리에 매달리는 놈들을 봐왔지만 나는 별로 와닿지 않더라구요

すぎる [縫る] 1. 매달리다. 2. 의지하다, 기대다. (=たよる)

참고: 그럼, 당신이 만들어 봐 제06화

27:38 私はまた 誰かに**選ばれた**
くて すがろうとしてる

>> 나는 또 누군가에게 선택받고 싶어서 매달리려 하고 있어



やから [輩] 1. 도배; 패거리 2. 일족



01:06:54 あなたに対する これまでの**非礼**

>> 당신께 지금까지 무례했던 점

ひれい [非礼] 비례, 실례, 무례. (=無礼)

無礼は目上の人に対する礼儀が欠けている状態を表し、失礼は簡単な謝罪を、非礼は取り返しのつかない言動をしたことに対する謝罪を表す時に使うという違いです。

無礼／失礼／非礼

例文買取センター

日本語を学べる、日本語を売れる。